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강종만 영광군수

"솔라파크 조성 기업유치"

"변화와 혁신으로 꿈과 사랑이 넘치는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약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해라는 인식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군수는 올해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과 소득증대, 선진형 교육·복지 사회구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열린 자치행정 실현 등 6대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홍농읍 조선산업 활성화

이를 위해 홍농읍 칠곡리 일원에 착공하게 될 조선산업과 성산리 일원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비롯 관내 4개지역에 솔라파크 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도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모싯잎송편을 비롯해 영광굴비, 새우젓, 태양초 고추, 천일염 등 지역 특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강군수는 지난해 지역특산물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미국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서는 한편 상표 등록 추진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 개발은 관광진흥과 직결된다. 영광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기념 공원과 천년 고찰 불갑사, 원불교 영산 성지, 기독교 순교지 등 3대 종교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굴비 브랜드 마케팅 주력

이같은 특성을 최대한 살려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나 관광버스 투어 강화,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와 노을전시관 조성 등 각종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역시 올 군정의 역점 시책들이다.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전국 제 1의 명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고품질 웰빙 농산물 생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초 고추의 품질 고급화, 청보리 한우의 생산기반 확충에다 황토 갯벌 뱀장어 가공·유통단지 건립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청사진도 마련한다.

여성 능력 개발 지원 확대

선진형 교육·복지 사회 구현은 지역의 밝은 미래 건설과 직결된다. 강군수는 영광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출산 장려금 확대·지원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민선 4기 출범이후 추진해온 시책들이다. 사계절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국토 공원화를 위해 다년생 꽃길과 특색있는 도로변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대교와 국도 22, 23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인구 8만에 도서관 딱 1곳

부끄러운 '文鄕화순'

연 이용객 30만명… 550석으론 크게 부족
장서 적고 시설 낡아 이용객들 불만 높아

인구가 8만명이 넘는 화순군에 20년이 다 되도록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지 않아, 향교가 3곳이나 있었던 '문향(文鄕)' 화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순지역에는 지난 1989년 교리에 건립된 교육청 산하 화순공공도서관 1곳만 운영되고 있다. 지난 18년간 도서관이 전혀 지어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화순공공도서관의 경우 매년 30만 명의 이용자가 찾고 있지만 최대 수용규모가 550석에 불과한데다 장서도 7만 권밖에 없고, 시설까지 낡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인근 보성군의 경우 인구가 5만5천여명이지만 보성 공공 도서관(보성읍 보성리)과 벌교 공공 도서관(벌교읍 벌교리) 등 2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98년에는 보성군청이 운영하는 보성군 농어촌 도서관(보성군 득량면 예당리)까지 건립돼 주민·학생들의 문화 공간과 면학장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순천시의 경우, 전남 최고 수준의 순천시립도서관 외에도 면 단위와 마을 단위까지 도서관을 짓는 '작은 도서관 정책'을 펼침으로써 남도 최고의 인재배출 고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에는 3천5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주암광천 작은 도서관'등 12개소 이상의 면 또는 마을 단위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도서관 협회 관계자는 "화순군은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문화활동 공간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눈꽃송이 같은 하우스 국화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시설하우스에서 탐스런 겨울 국화 출하가 한창이다. 강진지역은 작천·칠량면을 중심으로 2.9ha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20만 송이를 수확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월출산 3개 구간 '특별보호구' 지정

월출산 국립공원내 3개 구간이 15일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장군봉 일원 ▲동원농장~미왕재 일원 ▲무위사~미왕재 구간을 야생식물 군락지보호와 훼손탐방로 복원을 위해 특별보호구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등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국립공원내 보호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나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계곡에 대해 출입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문화제 탐방·쪽염색 체험 나주시 초등생 '버스투어'

나주시는 겨울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기존 버스투어 요금으로 문화재 발굴현장 탐방과 무료 천연염색 쪽 체험, 관광기념품인 '주몽 휴대폰 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재 발굴현장 탐방은 나주시에서 발굴중인 영동리 고분군 발굴 현장을 직접 방문, 문화재 발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된다. 또 전문가와 함께 천연염색 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나주시는 20명 이상의 단체 예약에 한해서는 평일에도 버스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61-330-8108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행정불만 말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광산구청 전국 첫 '행정불만 정보제공 보상제' 실시

광주시 광산구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정에 보탬이 되는 행정불만 정보제공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구정 개선 정보로 가치가 있는 불만을 선별해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행정불만 정보제공 보상제'를 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행정 불만족 사항을 파악해 구정개선에 반영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불만정보제공 보상금지급 조례'를 만들었으며 올해 초 광주시 법무팀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구는 교통, 도로, 하천, 공원, 환경, 건축 등과 관련된 건의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불만, 구 소속 공무원의 불친절 신고 등 구정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불만에 대해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구는 매월 1회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소명을 들은 뒤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영광군 올 보통교부세 897억

작년보다 154억 증가

영광군의 올해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54억원이 증가한 897억원으로 결정됐다.

영광군은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97억원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2006년도의 743억원보다 154억원(20.7%)이 늘어난 것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액률"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고 보조인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 부족분을 보전키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최근에는 경상경비 절약과 건전재정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 따라 교부 규모가 결정된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함평 (주)우성식품 최고 위생도축 업체

소비자聯, 2년연속 선정

함평군 학교면 소재 우성식품(주)(대표이사 민의인)이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 위생도축 업체로 선정됐다.

우성식품(주)은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5월부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전국 도축장 94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한 운용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업체로 분류됐다.

도축장과 양념육 공장을 운영중인 우성식품은 도축세 납부액이 2005년도 3억4천800만원, 지난해에는 3억8천200만원에 이르는 등 군 재정확충에 기여해왔다. 또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건실한 지역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란=축산물 작업장에서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한 후 주요 공정단계에 관리 포인트를 설정,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기법.